

흑등고래

게라마 제도의 흑등고래 킥가이드

러시아에서 사랑을 담아

흑등고래는 12월 말부터 4월에 걸쳐 번식과 양육을 위해 게라마 제도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도착하기 위해 흑등고래는 북극해의 바로 하류에 있는, 러시아와 알래스카를 가르는 베링 해협에서 6,000km 거리를 헤엄칩니다. 일반적으로 흑등고래는 1년에 반년 동안만 먹이를 먹습니다. 북극의 바다에 있는 동안에 먹고 열대·아열대 바다로 이동한 뒤에는 축적한 지방으로 생명을 유지합니다. 흑등고래는 수염고래입니다. 위턱에서 뻗어나온 솔 같은 수염판으로 먹이를 여과합니다.

강대한 해양 포유류

흑등고래 성체의 몸길이는 13~15m(대왕고래의 약 절반), 체중은 25~30톤으로서 새끼 고래의 크기는 약 5~6m입니다. 암컷 성체는 수컷보다 1m 정도 몸이 큰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흑등고래의 특징은 가슴지느러미(몸길이의 약 3분의 1로서 고래류 가운데는 최장), 머리 위의 융기된 돌기, 그리고 작은 등지느러미 앞에 있는 혹입니다.

위대한 쇼맨

흑등고래는 80년이나 살기 때문에 매년 같은 고래가 게라마 제도로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각 고래는 꼬리지느러미 뒷면에 있는 고유의 무늬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한편 흑등고래의 곡예 같은 구애 의식은 전 세계 고래 관찰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부상(浮上) 동작에는 브리칭(수면에서 뛰어오르기), 스파이호핑(수면에서 몸의 절반만 내밀고 몸뚱이를 수직으로 세운 자세를 유지하기), 가슴지느러미나 꼬리지느러미를 모아 맞부딪히기 등이 있습니다.

규칙을 지키자

장난을 좋아하고 우호적인 흑등고래는 바다표범을 범고래로부터, 나아가서는 인간을 상어로부터 지켜주기까지 합니다. 이 우정과 같은 행동에 호응하기 위해 게라마 제도에서는 엄격한 규칙에 따라 고래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보트는 고래로부터 반경 300m 권내에서 속도를 줄입니다. 고래로부터 100m 이하의 거리까지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어떤 형태로든 고래에게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약들에도 불구하고 게라마 제도의 고래 관찰 보트는 90%의 목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이는 숙련된 고래 관측원이 자마미 주변의 다양한

지점에서 고래가 내뿜는 분수를 찾아 실시간으로 보트를 고래가 있는 장소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래에 관한 토막 지식

흑등고래는 일본어로 자토쿠지라라고 합니다. 구지라는 고래를 의미하며, 자토는 비파(동양 현악기의 하나)를 연주하는 승려를 가리킵니다. 이 비파의 휘어진 머리 부분이 헤엄치고 있는 흑등고래의 모습과 닮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육지에서 고래를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

도카시키: 니시야마 산, 테루야마 전망대

자마미: 이나자키 전망대

SUGGESTED PHOTO(S)

1. Breaching whale (Hero image)
2. Bering strait map
3. Mother and Calf
4. Whale acrobatics
5. Whale and whale-watching boat/watchers onland
6. Picture of a lute